

농림어업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Intention of Elderly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yang-Mi Yi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약 도시화 진전으로 도시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구분해 노인들의 자살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직업(농림어업 종사)에 따른 노인들의 자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의 자살 의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3.0% 증가,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느끼는 경우 자살 의향은 1.1% 감소, 지역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 자살 의향은 2.7% 감소한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을수록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2.5% 감소한다. 하지만 동거 가족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또는 친척)의 대면 접촉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로움이나 가족(친척) 대면 접촉의 한계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 노력과 연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icide problem of the senior citizens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 rather than simply dividing seniors according to whether they live in rural or urban areas to seek countermeasures against suicide.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icidal intentions of senior citizens engaged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using the ranking probit model. As a result, the suicidal intention of senior citizens working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dustries who felt lonely increased by 3.0%, but the intention to commit suicide decreased by 1.1%, when they value their work, and the intent to commit suicide decreased by 2.7% when they feel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eir region. The mor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they meet every day, the suicide intentions of senior citizens in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decreased by 2.5%. However, since the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is decreasing every year, there is an inevitable limit on face-to-face contact with family members or rela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that links the loneliness of senior citizens in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with the effort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mote social values.

Keywords : Agriculture·Forestry and Fishery, Elderly, Marginal Effect, Ordered Probit Model, Suicide Intention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본연구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ang-Mi Yi(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mail: yihyangmi@ekr.or.kr

Received November 11, 2020

Revised December 22, 2020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우리나라의 ‘늘어가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늘어가는 한국’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약 7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에 따르면, 고령사회 분야에 22조4,734억 원이 투입되는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인들의 자살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노인 자살률은 2015년에 58.6명(인구10만명 당)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9명(1.9%, 인구10만명 당) 증가하였다.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Table 1).

Table 1. Suicide rete by age
unit : per 100,000 popul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10's	4.9	4.7	5.8
20's	16.4	16.4	17.6
30's	24.6	24.5	27.5
40's	29.6	27.9	31.5
50's	32.5	30.8	33.4
60's	34.6	30.2	32.9
70's	54.0	48.8	48.9
80 years old and older	78.1	70.0	69.8

data : [1]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 당)은 평균 11.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OECD 평균보다 2.1배 높다[1].

이러한 노인의 자살 원인은 연령, 결혼상태,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 지역사회와의 통합결여 등 복합적인 요인

이 작용하고 있으며, 오래도록 심사숙고하거나 계획적이어서 자살에 의한 사망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2]. 따라서 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다양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농림어업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생활고 해결을 위한 복지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8년 직업에 따른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무직(주부, 학생 등) 7.9%, 단순노무종사자 4.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2% 순으로 높기 때문이다[1]. 특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자살률은 2009년 9.3%에서 감소하긴 했지만, 순위는 2009년 9순위에서 2018년에는 3순위로 급등하였다. 물론 고령층(55세~79세)의 직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4.3%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판매종사자 23%,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22.0% 순으로 많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5.2%에 불과하다. 하지만 65~79세 연령층의 취업자는 농림어업 종사가 24.0%로 단순노무종사자 35.3%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문제는 심각한 인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3]이 지적한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 노력과 더불어 생활고와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때 자살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되며 복지증진 노력의 효율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낮은 연금 수급액으로 고령층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61.3%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따라서 [4]의 지적처럼 농림어업 종사자의 자살문제는 심각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노인의 자살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즉 노인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노인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특성, 예를 들어 급격한 사회변동, 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거시환경 요인은 노인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5]. 그리고 [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자살 연구들은 사회복지영역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비중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주로 독거노인[4]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7], 도시지역 노인[8], 농촌지역 노인[9]에 집중되어 있다. 즉 위 연구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림어업종사인들의 자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10]은 1983년~2007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일본의 농업유형에 따른 자살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축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산업적, 문화적 특성이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에서도 2017년에 38,000명의 근로 연령(16~64세)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이것은 20년 이내에 40% 증가가한 것이다. [11]는 미국 32개 주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자살률은 광업·채석·석유 및 가스 추출, 건설, 기타 서비스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한 후 성별에 따라 직업별 자살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 100,000명당 농림어업에 종사 남자의 자살률은 36.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산업 및 직업 간의 자살 위험 요소와 기타 위험 요소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과 심각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어업종사 노인으로 연구 표집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들과 연구 대상의 차별성이 있다.

2. 연구 방법과 이용한 자료

2.1 분석 방법

농림어업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범주변수로 범주가 서열척도(order scale)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 R_i^*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일 때, 이것은 Eq.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i^* = x_i' \beta + \nu_i \quad (1)$$

여기서 x_i 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추정계수 벡터(vector)이고, ν 는 오차항이다. 그리고 자살 의향 정도를 1부터 J 까지의 값을 갖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Eq. (2)와 같이 R_i 의 대응변수가 분석에 사용된다. 그리고 $R_i = j$ 일 확

률은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i = 1 \text{ if } R_i^* \leq \nu_0, \dots, R_i = J \text{ if } R_i^* > \nu_{J-2} \quad (2)$$

$$\begin{aligned} \Pr(R_i = 1) &= \Phi(-\beta x_i), \dots, \\ \Pr(R_i = J) &= 1 - \Phi(\nu_{j-2} - \beta x_i) \end{aligned} \quad (3)$$

그리고 전체 농림어업 종사 노인 N 에 대한 로그우도 함수는 Eq. (4)와 같고, 본 연구에서는 이 전체 로그우도 함수를 극대화하는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log L = \sum_{i=1}^N \sum_{j=1}^J M_{ij} \log[\Phi(\nu_j - \beta x_i) - \Phi(\nu_{j-1} - \beta x_i)] \quad (4)$$

한편 순위화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를 활용해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별 확률 예측치와 설명변수의 자살 의향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Eq. (5)는 설명변수가 연속변수 일 때, Eq. (6)은 설명변수가 더미변수일 때 한계효과이다.

$$\frac{\partial P(y_{ij} = j)}{\partial x_k} = [\phi(\nu_j - \beta x_i) - \phi(\nu_{j+1} - \beta x_i)] \beta_k \quad (5)$$

$$\frac{\Delta P(y_{ij} = j)}{\Delta x_k} = P(y_{ij} = j | x_k = 1) - P(y_{ij} = j | x_k = 0) \quad (6)$$

2.2 이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자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2019년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주는 총 160명이다.

Table 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63.7%는 남자 노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농어촌지역 거주 응답자 88.7%). 또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83.1%이다. 정규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35.0%이다.

현재 거주지역에는 10년 이상이 87.50%로 가장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림어업종사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Table 2. Key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lassification	Variable description	Mean	S.D.
Intention to commit suicide	Not at all = 1, not much = 2, slightly so = 3	1.3	0.5
Degree of loneliness	Not at all = 1, not much = 2, slightly so = 3, very so = 4	1.7	0.8
Value for work	Not worth at all = 0, normal = 5, very valuable = 10	6.1	1.4
Sense of belonging to Eup, Myeon, Dong area	Not at all = 1, not much = 2, slightly so = 3, very so = 4	3.0	0.6
Family and relatives in contact in a day	None = 1, 1-2 people = 2, 3-4 people = 3, 5-9 people = 4, more than 10people= 5	2.4	0.9
Neighbors in contact in a day	None = 1, 1-2people = 2, 3-4people = 3, 5-9people = 4, 10-19people = 5, 20-49people = 6, more than 50people = 7	3.1	0.9
Conflic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young	Not too much = 1, not too much = 2, slightly too much = 3, very severe = 4	2.8	0.6
Preparation for retirement	Not ready at all =1, not very ready =2, slightly prepared = 3, very well prepared = 4	2.4	0.7
Stable current economic situation	Not stable at all = 0, normal = 5, Very stable = 10	4.9	1.5
Gender	Man = 1, otherwise = 0	0.6	0.5
Marital status	Having a spouse = 1, otherwise = 0	0.8	0.4
Education	High school or higher = 1, otherwise = 0	0.4	0.5
Average monthly personal income	No income = 1, less than 1 million won = 2, 1 million won = 3, 2-3 million won = 4, 3-4 million won = 5, more than 4 million won = 6	2.8	1.4
Current residence period	Less than 1 year = 1, less than 1-3 years = 2, less than 3-5 years = 3, less than 5-10 years = 4, more than 10 years = 5	4.8	0.7
Current health status	Very bad = 1, bad = 2, normal = 3, good = 4, very good = 5	3.3	0.8
Residence	rural = 1, otherwise = 0	0.9	0.3

있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부분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있는 농림어업종사 노인 86.25%).

현재 건강은 보통이나 좋은 상태가 가장 많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보통이 가장 많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별로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약간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많다. 한편 자살의향, 외로움의 정도는 별로 그렇지 않은 상태가 가장 많고, 일에 대한 가치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매일 만나는 사람의 경우 가족·친인척은 1~2명이 53.5%, 이웃은 3~4명이 46.25%로 가장 많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교류가 없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은 11.88%이고, 이웃과 교류가 없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은 2.5%이다.

이와같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 가구주의 특징을 요약하면, 대부분 남자 가구주이고, 혼인상태이며, 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일에 대한 가치, 노후 준비정도, 현재 경제 상황은 보통 수준이 가장 많다.

3.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해,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Table 3은 분석결과이다. 먼저 우도비 검정 결과 (Likelihood ratio test),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림어업 종사 일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일 하루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을수록 자살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농림어업 종사 노인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살 의향은 감소하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들의 자살 의향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대응책은 단순히 도시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

책 수립이 시급하다.

Table 3. Results

Variables	Coefficient	t-value
Value for work	-0.196 [*]	-1.95
Sense of belonging to Eup, Myeon, Dong area	-0.480 ^{**}	-2.11
Family and relatives in contact in a day	-0.442 ^{**}	-2.35
Neighbors in contact in a day	0.004	0.03
Degree of loneliness	0.523 ^{***}	3.05
Conflic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young	0.090	0.42
Preparation for retirement	0.074	0.31
Stable current economic situation	-0.119	-1.27
Gender	-0.277	-0.83
Marital status	-0.166	-0.51
Education	-0.0522	-0.17
Average monthly personal income	0.060	0.64
Current residence period	-0.090	-0.45
Current health status	0.127	0.76
Residence	-0.277	-0.71
/cut1	-2.337	1.62
/cut2	-0.929	0.65
LR chi2(15)	52.32 ^{***}	

*** p<0.01, ** p<0.05, * p<0.1

하지만 Table 3의 추정결과는 [12]가 지적한 것처럼 각 설명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로 고려된 자살의향의 범주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 계수 부호만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즉 순위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는 각 변수들의 영향의 방향과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된 특정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의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하였다. Table 4는 설명변수가 각각의 자살 의향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다른 요인들이 평균값에서 일정할 때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 의향이 전혀 없을 확률은 10.9% 감소하고, 약간 자살 의향이 있을 확률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요인들에 비해 외로움 변수의 한계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향후 농림어업 종사 노인들의 외로움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판단된다.

이어서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자살의향이 전혀 없을 확률은 10% 증가하고, 약간 자살 의향이 있을 확률은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에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척수가 많아질수록 자살 의향이 전혀 없을 확률은 9.2% 증가하고, 약간 자살 의향이 있을 확률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할수록 자살 의향이 전혀 없을 확률은 4.1% 감소하고, 약간 자살 의향이 있을 확률은 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계효과 분석결과,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척수가 많을수록 자살의향이 감소하고, 일에 대한 소중함 또한 자살 의향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 함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Marginal effect

variables	No intent to commit suicide	Not very willing to commit suicide	A little bit suicidal
Value for work	0.041 ^{**} (1.99)	-0.029 [*] (-1.94)	-0.011 [*] (-1.76)
Sense of belonging to Eup, Myeon, Dong area	0.100 ^{**} (2.15)	-0.072 ^{**} (-2.08)	-0.027 [*] (-1.89)
Family and relatives in contact in a day	0.092 ^{**} (2.41)	-0.066 ^{**} (-2.34)	-0.025 ^{**} (-2.02)
Degree of loneliness	-0.109 ^{***} (-3.32)	0.079 ^{***} (3.26)	0.030 ^{**} (2.34)

*** p<0.01, ** p<0.05, * p<0.1 () means t-value

4. 요약 및 제언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는데, 농촌지역의 자살율은 도시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도시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으로 도시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81.4%이고, 2030년에는 8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율은 도시농업 또는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하는 농림

어업종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구분해 노인들의 자살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직업(농림어업 종사)에 따른 노인들의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을 느끼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은 자살 의향이 높지만,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느끼거나 지역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 일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 내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웃보다는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을수록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자살 의향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 및 출생률 저하로 동거 가족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또는 친척)의 대면 접촉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농림어업 종사 노인들의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로움이나 가족(친척) 대면 접촉의 한계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 노력과 연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후시설을 활용해 농림어업 종사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60대 농림어업종사 노인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농림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림어업종사 노인들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농림어업종사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타 업무 종사자와의 비교분석 및 연령층을 고려한 직업군별 노인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양적 분석(quantitative research)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종사 노인의 성별 등은 이들의

자살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및 표집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제 농림어업종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등의 질적 분석(qualitative research) 수행 후 양적분석과 병행하여 분석 및 해석할 경우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Central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pp.56-90, 2020.
- [2] J. H. Ahn, J. Y. Lee, C. S. Han,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suicides analyzed as the cause of death", *Rationale and value*, Vol.3 No.1, pp.18-31, 2014.
- [3] Y. J. Choi, J. Y. Park. "Economic Hardship, Social Welfare and Suicide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3, pp.155-182, 2014.
DOI: <https://dx.doi.org/10.15855/swp.2014.41.3.155>
- [4] J. J. Huh, M. J. Choi,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Elderly Suicide Rate in Korea, *Housing Studies Review*, Vol.21, No.4, pp.47-60, 2013.
- [5] S. M. Hong, Y. S. Kang, H. K. Kim,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1, pp.5752-5761, 2013.
- [6] G. Y. Lee, E. H. Cho, "A Study on the Effect of Main Variables to the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3, No.1, pp.162-189, 2013.
DOI : <https://dx.doi.org/10.15709/hswr.2013.33.1.162>
- [7] S. Y. So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Suicidal Ideat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 No.2, pp.149-160, 2014.
- [8] M. Y. Kim, H. R. Shin, "Influenc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Seoul Urban Studies*, Vol.14, No.4, pp.185-201, 2013.
- [9] J. M. Le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by Rural Elderly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2, pp.665-674., 2019.
- [10] Kanamori-Kondo, "Suicide and Types of Agriculture: A Time-Series Analysis in Japa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50, No.1, pp.122-137.

2020.

DOI : <https://dx.doi.org/10.1111/sltb.12559>

- [11] C. Peterson., A. Sussell, J. Li, P. Schumacher, K. Yeoman, D. Stone, "Suicide Rates by Industry and Occupation",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69, No.3, pp.57-62, 2020.
- [12] W.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pp.468-523, 2003.
-

이 향 미(Hyang-Mi Yi)

[정회원]



- 2011년 2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3년 8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4년 8월 ~ 2016년 5월 :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 2016년 5월 ~ 현재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관심분야〉

농지,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생산기반, 사회적 가치